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포스코센터



이번 탐방은 중앙지부의 추천으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포스코센터를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포스코의 자회사로서 포스코 관련 사업체 전반의 시설을 관리하는 포스메이트 시설팀의 황성수 대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포스메이트(posmate) 포스메이트는 부동산 임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포스코의 자회사로서, 지난 1990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성실봉사, 고객만족, 인간존중, 최고지향을 기업이념으로 3본부 7부 2실 28팀에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포스코센터 빌딩 등의 운영관리를 통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전문 유통단지인 테크노마트-21빌딩과 중국 상해 POS-PLAZA 건물의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설 현황 지난 1995년 준공 당시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인 포스코센터는 동관 62,594㎡, 서관 41,220㎡ 포함 연면적 181,014㎡에 지상 최고 30층 지하 6층 규모이다.

진도 7의 내진구조로, 중수조설비, 냉각수 수처리 및 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과 자동주차관리시스템, 진공청소설비, 문서반송설비, 빙축열설비 등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최첨단 인텔리전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전관련 시설로는 소화기, 경보설비, 소화전 등 기본시설 외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으며, 소방펌프만 28개, 비상수원 1,592톤, 가스계 소화구역 56구역 등을 갖추고 있다. 시설에 대한 개선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전기 판넬에는 이상 발생 시 카메라가 해당 판넬로 이동하는 최첨단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화재, 풍수해, 정전, 승강기 사고 등 상황별로 저장된 방송 문자메시지가 자동 송출되는 문자 비상방송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최첨단 비상전원 자동절환시스템 도입 등 최신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서울시 안전관리 인증제 모범대상 포스코센터 빌딩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제1회 서울시 안전관리 모범대상 인증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서울시 안전관리 모범대상 인증제란 서울시가 방화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경영자의 재정지원 및 안전관리 관심도,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화재발생 및 피해사항 등 11개 항목 22개 분야에 대해 정밀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포스코센터 빌딩은 환경인증인 ISO 14001과 품질인증인 ISO 9001, 산업안전 보건인증인 OHSAS 18001을 인정받았고, 산업안전공단의 무재해 12배수인 4,350일도 달성한 바 있다.



포스메이트 시설팀의 황성수 대리

포스코센터의 소방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포스코센터의 방화관리 인원은 외주 2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다. 그중에서도 포스메이트 시설팀의 황성수 대리는 소방박사로 통한다. 전기산업기사와 소방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포스코센터의 소방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나 그의 몫이다. 바쁜 와중에는 번거로운 생각도 들지만, 동료에게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늘 군말 없이 상담에 응한다. 작년 말 포스코센터의 서울시 안전관리 모범대상 수상도 그의 역할이 컸다.

평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외에도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한 덕분이다. 상주인원만 3,800명에 이르는 포스코센터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10년 이상 된 화재감지기를 전량 교체하였고, 위험이 높은 주방후드에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방재수신반의 운영 프로그램도 준공 당시의 도스에서 최신 윈도우 XP로

업그레이드하였다. 소방설비 관리상태를 언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PDA를 통한 디지털 관리시스템도 도입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무표준화를 위한 소방직무 매뉴얼 제작이다. 점검, 관리뿐 아니라 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FLOW와 함께 소요시간, 작업 목적, 업무절차, 작업요령 등을 매뉴얼화해 누구든 손쉽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황성수 대리는 지난 2006년 결혼하여 6개월 된 딸아이를 둔 아빠다. 그에게 있어 직장 동료는 가족이나 다름없다. 실제 같이 지내는 시간을 따져보면, 아내나 딸아이보다 직장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다. 그래서 그에게 직장 동료야말로 진정 소중한 가족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땀 흘리는 이들이 있기에, 안전 포스코센터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땀 흘리는 이들이 있기에, 안전 포스코센터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